

CULTURE

2013년 5월 29일 수요일

매일경제 A31

2013.5.29

국제갤러리(주)

여성의 상처 예술이 되다

이집트 작가 아메르展

이집트 출신의 가다 아메르(50)는 뉴욕에서 활동하는 중동 작가다. 아랍 출신이지만 파리와 니스에서 교육을 받아 서구 문화가 낯설지 않다.

그래서일까. 그는 전 세계, 특히 중동에서 벌어지는 여성에 대한 편견과 억압을 예술로 풀어내는 작업을 하고 있다. 그가 페미니즘 작가로 분류되는 이유다.

아메르의 첫 국내 개인전이 서울 삼청로 국제갤러리에서 열리고 있다.

그를 국제적인 스타로 도약시킨 페인팅 작업뿐만 아니라 여성과 정치 사회 이슈를 아름다운 예술로 빛은 조각품도 만날 수 있다. 그는 캔버스를 실로 꿰매는 작업을 통해 여성성을 한껏 부각시킨다.

캔버스 위에 실을 붙이거나 바늘로 꿰맨 실들의 궤적은 에로틱하면서 자유분방한 느낌을 준다.

하이라이트 작품은 '과란 브라지어의 소녀들'이라는 조각 작품이다. 2년 전 이집트에서 무바라크 독재 정권이 무너지기 직전 시위 진압대의 구타를 받은 한 여성의 옷이 벗겨져 과란 브라지어가 노출되는 사건이 화제가 됐다. 전 세계 SNS를 타고 전해진 이 사건을 작가는 그냥 넘기지 않았다. 속이 빈 커다란 구(球) 형태에 그는 정면을 응시하는 여성 8명의 형상을 빚었다. 6월 30일까지.

(02)3210-9885

이향휘 기자



'The heart'